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 선정

- 2024년 일본에서 열리는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공식 선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금),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현황

- '14년: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 '15년: 청주, 니가타, 칭다오
- '16년: 제주, 나라, 닝보
- '17년: 대구, 교토, 창사
- '18년: 부산, 가나자와, 하얼빈
- '19년: 인천, 도쿄 도시마구, 시안
- '20년: 순천, 기타큐슈, 양저우
- '21년: 순천, 기타큐슈, 사오싱·둔황
- * 코로나19로 순천, 기타큐슈는 '21년으로 연기
- '22년: 경주, 오이타현, 지난·원저우
- '23년: 전주, 시즈오카현, 청두·메이저우
- '24년: 김해, 이시카와현, 웨이팡·다롄

* '24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전까지 중국과 일본도 각각 '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예정

안성시,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장인 전통공예 특별전, 한·중·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교류 행사, 3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조선 후기 경기도 안성 남사당패를 이끈 여성 꼭두쇠, 뛰어난 기량으로 15살 어린 나이에 남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꼭두쇠가 됨.

한편, 한·중·일 3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경기 안성시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인 안성장*과 남사당놀이 등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이야기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이다.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우의를 쌓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와 물류가 활발히 교류했던 공간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